

『조선사진첩(朝鮮寫眞帖)』의 우이동 벚꽃과 홍양호(洪良浩)

: 「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를 중심으로*

김효숙 _ 세종대학교 조교수

이병진 _ 세종대학교 교수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조선사진첩』(1925)에 대해
- III. 일제강점기 우이동 벚꽃의 의미
- IV. 『조선사진첩』 「우이동」의 「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
- V. 나오며

국문초록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 통치하는 과정에서 선발 제국인 서양의 평가를 끊임 없이 의식하며 서양 제국을 향해 자신들의 통치의 정당성, 정책, 결과를 선전하고 고양하려 했다. 이러한 논리구조에서 생성된 것이 바로 일본어 문헌을 영어로 다시 번역한 「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이다.

「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 중에서 특히 독특한 양상을 띠는 문헌이 바로 1925년에 발행된 『조선사진첩』이다. 이는 1920년대에 서양인 시찰단이 급증하면서 그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저작된 책자로, 사진에 대한 설명이 일본어와 함께 영어로도 실려 있다. 일본은 『조선사진첩』을 통해 그들이 이루어낸 「근대문명」과 낙후된 조선을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3062359).

대비시키며 자신들의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선전하고자 했는데, 그 대상에는 조선인과 일본인뿐 아니라 서양의 독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식민 통치 정책의 근간이었던 동화 정책이 강조되어 있는데, 특기할 사항은 동화 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일본어와 영어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이다. 우이동 벚꽃에 대해 설명한 일본어와 영어를 비교해 보면, 일본어에는 우이동 벚꽃이 조선시대의 홍양호가 일본으로부터 이식한 것이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반면에, 영어는 홍양호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에서 유래되었다는 간략한 설명만 나와 있다. 이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에서는 홍양호를 통해 동화정책의 정통성과 필연성을 확보하여 대중을 납득시키고 설득할 필요가 있는 반면, 영어에서는 홍양호라는 고유명사가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또한 서구권 독자에게는 일본인과 조선인에 비해 동화정책의 필연성을 역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제어

『조선사진첩(朝鮮寫眞帖)』, 홍양호(洪良浩), 우이동, 벚꽃, 『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

1. 들어가며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과 그 대리자인 조선총독부는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로 된 문헌을 다수 발행하였다. 특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저작한 문헌에 대해서는 일본어를 다시 영어로 번역하여 대내외에 발신함으로써 영어를 통해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서양 제국에 「승인」받고 정당화하려 했다. 즉 일련의 「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 사료군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영어로 번역된 문장은 일본어로 쓰인 문헌과는 그 목표 대상이 다르고 저작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번역 본연의 기능 즉 다른 언어로 재생산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과는 별개로 텍스트의 결 자체가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¹⁾

1) 김효숙·곽은주·이병진·탁진영, 「조선총독부 간행 「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 사료군의 보고 및 연구전망」, 『일본공간』 28, p.151.

한편 일제강점기의 시공간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종래 연구는 문자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시각적 자료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사진, 엽서 등이 새로운 연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고 통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풍경을 담은 다수의 사진첩을 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66점의 사진첩이 보고되었다.²⁾ 이러한 사진첩은 낱장의 사진보다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편집했다는 점에서 발행자 즉 식민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더 유용하기 때문에 학계의 관심이 사진첩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³⁾

사진첩은 주로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1876년 식민주의적 침략의 시발점인 강화도조약을 시작으로 하여,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일본 황태자의 한반도 방문 등 큰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는 반드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사진첩을 발행하였다.⁴⁾

여기에서 더욱 주목할 사항은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사진첩 중에 『일한합병기념 대일본제국조선사진첩(日韓合併紀念大日本帝國朝鮮寫眞帖)』(1910), 『조선사진첩(朝鮮寫眞帖)』(1925), 『반도의 근영(半島의近影)』(1937)⁵⁾에는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 번역이 실려 있어, 서구 열강을 의식한 저작 의도가 선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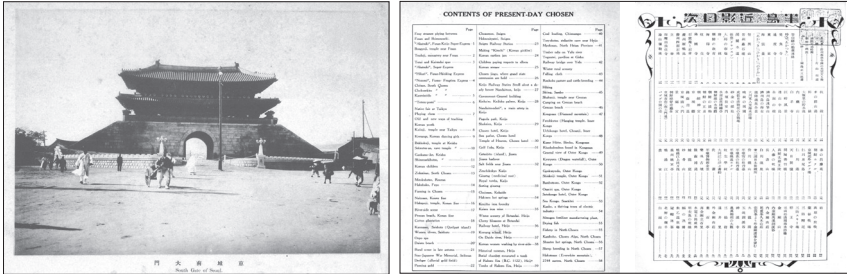
2) 장원석·정치영, 「일제의 사진첩에 투영된 식민지 조선의 이미지」, 『한국사진지리학 회지』 제30권 제2호, 2020, p.44.

3) 장원석·정치영, 상계 논문, pp.42~67.

4) 이연경, 「경성부지권(京城府之卷) 외 사진첩에 재현된 일본인 거주지의 도시공간의 성격과 그 특징」,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3권 3호, 2018, p.278. 문순희·박진한, 『사진엽서와 안내서로 만나는 인천의 명소와 근대관광』,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소, 2018, p.44.

5) 『반도의 근영』은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1936년에 발행한 사진첩이다. 그 다음해인 1937년에는 영어 목차를 첨부한 개정판이 발행되는데, 『매일신보』에 의하면 이는 외국인에게 배부할 것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半島의近影 英文寫眞帖』, 『京城日報』, 1936년 5월 6일, p.2).

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사진첩마다 영어 번역문을 게시한 형식이 각각 다르는데, 『일한합병기념 대일본제국조선사진첩』은 본문의 사진 제목을 일본어와 영어로 병기하였고, 『반도의 근영』은 사진첩의 구성을 보여주는 목차를 일본어와 영어로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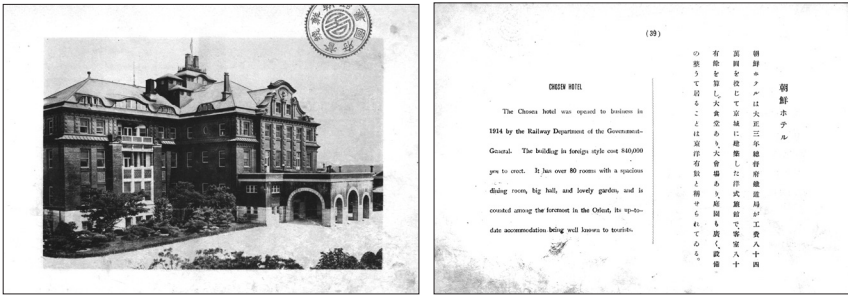


『일한합병기념 대일본제국조선사진첩』과 『반도의 근영』(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이 사진첩 중에서 『반도의 근영』의 영어 목차를 분석한 김효숙 등은 식민지조선의 한자 지명이 대부분 일본어 발음에 기반하여 음역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장수산(長壽山)을 「Chojusan, Kokaido」라고 번역하였는데, 「Chojusan」은 장수산을 일본어 발음으로 음역한 것이고, 「Kokaido」는 장수산이 위치한 황해도를 일본어 발음으로 나타낸 것이다. 즉 「Chojusan, Kokaido」는 장수산과 황해도를 일본어 발음에 기반하여 로마 알파벳으로 표기했을 뿐, 이것이 특정 산과 지명을 나타낸다는 정보가 영어로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어에 대한 이해와 한반도에 대한 지리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Chojusan, Kokaido」를 비롯한 영어 목차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어를 통한 의미 전달이 아니라 조선 지명을 일본어로 발음함으로써 조선이 일본에 귀속된 것임을 천명함에 있

다.⁶⁾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문헌의 영어 번역은 일본 제국주의의 일종의 통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반도의 근영』과 『일한합병기념 대일본제국조선사진첩』은 사진의 목차, 혹은 사진의 제목만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에 반해, 본고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조선사진첩』은 제목만이 아니라 사진에 대한 해설도 영어 대역문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다.



『조선사진첩』의 「조선포텔」 항목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이는 『조선사진첩』이 『반도의 근영』 『일한합병기념 대일본제국조선사진첩』에 비해서 서구권 독자를 강하게 의식한 텍스트임을 반증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사진첩』의 제작 배경과 목적을 살펴본다. 그리고 『조선사진첩』 안에 제시되어 있는 일본어와 영어의 문장 구성이 어떻게 다르고 이러한 차이에 함축된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당시 벚꽃의 명소로 유명했던 「우이동」 항목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6) Hyosook KIM, Silo CHIN, Jin-Young TAK, Eun-Joo KWAK, 「The Transliteration of Korean Place Names in Colonial Times: Unveiling the Strategies of Japanese Imperialism」, 『Acta Koreana』 26-2, 2023, pp.91~112.

II. 『조선사진첩』(1925)에 대해

1. 『조선사진첩』의 내용과 구성

본고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조선사진첩』은 1925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사진첩으로 98장의 사진과 함께 사진에 대한 간략한 해설이 실려 있다.⁷⁾ 기본 사용 언어는 일본어이며 목차 및 해설에 영어 대역본이 제시되어 있다. 그 구성 및 내용을 부감하기 위해 아래에 『조선사진첩』 목차를 표로 정리하여 인용한다.⁸⁾

	『조선사진첩』 목차	한국어역 ⁹⁾
1	漢江の朝	한강의 아침
2	京城全景	경성 전경
3	京城市街	경성 시가
4	新築中の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廳舍 廳舍	신축중인 조선총독부 청사
5	中樞院 同會議	중추원 동 회의
6	慶會樓	경회루
7	不二農場 益沃水利組合大雅里 貯水池	불이농장 익옥수리조합 대아리 저수지
8	群山に於ける米穀輸移出	군산의 미곡 수이출
9	勸業模範場 燃料選鑛研究所	권업모범장 연료 선평 연구소
10	竹林 木浦に於ける棉花積出	축림 목포의 면화 적출
11	牡丹臺	모란대
12	鯰漁業 統營移住漁村	동어업 통영 이주 어촌
13	仁川公會堂 京城商業會議所	인천공회당 경성상업회의소
14	蔞の共同販賣	누에 공동판매

7) 목차에는 98장의 사진 목록이 제시되어 있으나, 필자가 열람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상당수의 원본 페이지 결본이 있어, 사진은 75장만 확인할 수 있었다.

8) 조선총독부, 『조선사진첩』, 조선인쇄주식회사, 1925. 페이지 수 지정 없음.

9) 『조선사진첩』의 한국어역은 필자에 의한다. 이하 같음.

	『조선사진첩』 목차		한국어역	
15	水原の牛市場	大邱市場	수원 우시장	대구시장
16	朝鮮製絲株式會社工場	大日本製糖株式會社平壤工場	조선제사주식회사 공장	대일본제당주식회사 평양 공장
17	兼二浦製鐵所		겸이포제철소	
18	仁川築港	淸津港	인천 축항	청진항
19	鴨綠江羅暖堡の急流	官營造林	압록강 나란보 급류	관영 조림
20	百祥樓	嶺南樓	백상루	영남루
21	朝鮮人蔘畑		조선 인삼밭	
22	忠州の煙草	廣梁灣鹽田	충주 담배	평양만 염전
23	漢城銀行	東洋拓殖株式會社京城支店	한성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지점
24	朝鮮神宮		조선신궁	
25	京城帝國大學豫科校舍		경성제국대학 예과 교사	
26	水原高等農林學校	裡里農業學校實習地	수원고등농림학교	리리농업학교실습지
27	大田中學校	京城第二公立高等女學校	대전중학교	경성제이공립고등여학교
28	海州高等普通學校	京城女子高等普通學校	해주고등보통학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29	京畿道公立師範學校		경기도공립사범학교	
30	淸州公立尋常高等小學校	新義州公立普通學校	청주공립심상고등소학교	신의주공립보통학교
31	滿鐵京城圖書館	朝鮮總督府圖書館	만철경성도서관	조선총독부 도서관
32	昌慶苑		창경원	
33	朝鮮美術展覽會		조선미술전람회	
34	經學院		경학원	
35	孝昌園	オリンピック豫選大會	효창원	올림픽예선대회
36	大弓競技	牛耳洞	대궁 경기	우의동
37	光化門電話分局	仁川郵便局	광화문전화분국	인천우편국
38	鴨綠江鐵橋	プロペラー船	압록강철교	프로펠러선
39	朝鮮ホテル		조선호텔	
40	朝鮮總督府醫院		조선총독부의원	
41	群山醫院	春川醫院の巡回診療	군산의원	춘천의원 순회진료
42	大邱水道貯水池		대구수도저수지	
43	京城救世軍育兒ホーム	セヴランス病院	경성 구세군 육아홈	세브란스병원

『조선사진첩』 목차		한국어역	
44	向上會館 濟生院盲啞部	향상회관	제생원 맹아부
45	平壤市街	평양시가	
46	中江鎭警察署 惠山警察署江口警察官駐在所	중강진경찰서	혜산경찰서 강구경찰관주재소
47	高等法院	고등법원	
48	大邱覆審法院 新義州地方法院公判狀況	대구복심법원	신의주지방법원 공판 상황
49	大天主堂 東本願寺別院	대천주당	동본원사 별원
50	釋王寺 浮石寺	석왕사	부석사
51	石窟庵の石佛 佛國寺	석굴암의 석불	불국사
52	江西古墳の壁畫	강서고분 벽화	
53	百濟城址 平濟塔	백제성지	평제탑
54	灌佛日の觀燈會 開城に於ける端午のブランコ	관불일 관등회	개성 단오 그네
55	洗濯砧打	빨래 다듬이질	
56	東萊溫泉 儒城溫泉	봉래온천	유성온천
57	元山海水浴場	원산 해수욕장	
58	朝鮮の部落	조선의 부락	
59	婚禮の行列 墓參	혼례 행렬	성묘
60	金剛山新萬物相	금강산 신만물상	
61	金剛山玉流溪	금강산 옥류계	
62	金剛山望軍臺の大觀	금강산 망군대 대관	
63	叢石亭	총석정	

위의 인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①조선총독부 관련 기관(조선총독부 청사, 조선총독부 도서관, 조선총독부 의원 등), ②「근대」 산업의 상징(경성상업회의소, 조선제사주식회사 공장, 검이포제철소, 인천우편국 등), ③「근대」 교육 기관(경성제국대학 예과 교사, 수원고등농림학교, 대전중학교, 경기도공립사범학교 등)¹⁰⁾, ④조선의 관광명소(금강산, 불국사, 창경원, 우이동 등), ⑤조

10) 『조선사진첩』의 영어 문장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분석한 탁진영은 1919년 조선총독부가 개정한 2차 조선교육령의 주요 지침인 ‘일본 학제와의 동일성’, ‘여학생 교육 확대’, ‘고등교육 기회 부여’ 등의 영어 텍스트가 상당히 발견되고, 어휘 빈

선의 문화 및 풍경(빨래 다듬이질, 혼례 행렬 등)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이 만든 산업 시설, 근대적 교육 기관 등과 함께 조선 고유의 요소와 관련해서는 「하층의 부인들이 삼삼오오」¹¹⁾ 모여 빨래를 하거나 다듬이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일본이 식민지조선에 건설한 「근대 문명」과 낙후된 조선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대조적 구성은 비단 『조선사진첩』만이 아니며, 한국 박물관의 첫번째 도록인 『이왕가박물관 소장품 사진첩』에도 보인다. 『이왕가박물관 소장품 사진첩』의 앞부분에는 창경원의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의 전경을 찍은 사진이 각각 2장씩 수록되어 있는데, 사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되지 않은 과거의 사진과 잘 단장된 현재의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¹²⁾ 이에 대해 목수현은 과거 왕궁이었던 창경원의 퇴락한 모습과 일제의 보호를 받은 이래 수리를 거쳐 이처럼 발달한 문명의 모습을 띠게 되었음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¹³⁾ 『조선사진첩』에 일본이 만든 「근대」 산업 시설, 교육 기관과 함께 낙후된 조선 문화 요소를 구성한 것도 이와 같은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문인 이광수(1892~1950)는 1921년 잡지 『개벽』에 「外人이 우리를 批評할 때에는 모다 懶惰한 것을 第一로 칩니다. 긴 담배대를 물고 한 대 낫잡자는 모양을 박은 朝鮮 사람의 寫眞이 西洋에 돌아다니는 寫眞帖과 甚至어 地理教科書의 插畫에까지 들어갑니다」라며 조선민족의 나태한 모습

도·연어 그래프·중심성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논하며, 제작 목적이 1919년에 발표된 조선교육령과 관련 있음을 주장하였다. 「조선총독부 발행 『조선:사진첩』(1925)의 영어 텍스트 분석: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담론 분석」, 『인문과학논총』 43권 2호, 2022, pp.177~200.

11) 『조선사진첩』, 「洗濯砧打」(세탁 다듬이질) 항목, 페이지 수 지정 없음.

12) 이왕직박물관, 『이왕가박물관 소장품 사진첩』, 1918, pp.10~11.

13) 목수현, 「일제하 이왕가 박물관(李王家博物館)의 식민지적 성격」, 『미술사학연구』 227권 227호, 2000, pp.93~94.

을 통탄하였다.¹⁴⁾ 또한 그의 글을 통해 당시 사진첩이 조선인의 부정적인 모습을 주요 소재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더욱 중요한 사항은 그 사진첩이 「西洋에 돌아다」냈으며 이를 통해 「外人」이 조선인을 「懶惰」하다고 평가한다는 점이다.

서구 사회가 조선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렌즈로 사진첩이 기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사진첩』도 이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며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2. 『조선사진첩』의 제작 목적

일본의 근대화 성과와 낙후된 조선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배치한 『조선사진첩』은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는지, 본절에서는 당시의 사진첩 제작과 관련된 신문 매체의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관광」이라는 새로운 소비문화가 대두하기 시작한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각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사진엽서로 제작되어 대표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자리잡았고, 관광을 유도하는 홍보수단으로 활용되었다.¹⁵⁾ 관광 홍보 수단으로 『사진첩』 또한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제작 발행한 『반도의 근영(半島の近影)』은 조선에 부설된 철도와 각 철도라인에 인접한 관광명소 및 관련산업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성일보(京城日報)』는 이를 「관광 사진첩」이라고 소개하며, 제국철도협회 총회에 출석한 인사들에게 배부하였고, 명사(名士)와 유력 내외 관광단에 증정할 예

14) 魯啞子(이광수), 「少年에게」, 『개벽』 18호, 1921, p.36. 魯啞子は 이광수가 1921년부터 1922년까지 『개벽』에서 사용한 필명이다.

15) 김수현, 「새로운 소비문화 ‘관광’: 식민지 조선의 여행지 홍보 수단」, 『민족21』, 2009, p.142.

정이라고 보도하였다.¹⁶⁾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사진첩의 배포 대상에 「유력」한 「내외 관광단」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지점인데, 이는 『반도의 근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본 고베(神戸)의 유력 인사로 구성된 만선실업시찰단(滿鮮實業視察團)은 1915년 9월 8일 고베를 출발하여 9일에 부산에 도착, 진해를 시찰, 그리고 경성으로 가서 공진회를 관람한 후 만주로 향하였는데,¹⁷⁾ 이들에게 증정하기 위해 특별히 사진첩이 제작되었다.¹⁸⁾ 즉 부산부협찬회(釜山府協贊會)가 부산의 풍경을 담은 사진첩을 특별히 제작하여 증정했다.¹⁹⁾ 이를 통해 사진첩의 제작 목적 중의 하나가 국외에서 온 시찰단에게 배부하기 위함이었음이 확인된다.

1919년 3·1운동 이후 1920년대에 들어와 일본은 이른바 「문화통치」를 표방하며 1910년대에 비해 유희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1920년대에 대내외에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을 했는데, 이를 위해 조선정보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제국에 대해 조선통치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유치와 외국에 대한 한국사정의 소개와 안내가 강조되었다.²⁰⁾ 이와 같은 배경에서 1920년대에는 미국인 시찰단(관광단)도 급증하여 수백 명 규모의 방문객이 유람선을 이용해서 방한하였다. 특히 1926년은 미국인 시찰단의 방한이 절정을 이룬 해였는데, 이는 대형 유람선의 운항으로 수백 명 단위의 대규모 방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서울에서 방문한 장소는 경복궁, 덕수궁 등의 고적과 남대문동, 종로 등의 비교적 변화한 상가 거리였는데, 여기에는 식민통치의 결

16) 「觀光写真帳『半島の近影』, 『京城日報』, 1936년 4월 29일, p.11.

17) 「神戸視察団來鮮」, 『釜山日報』, 1919년 9월 4일, p.2.

18) 「協贊會の写真帖」, 『朝鮮時報』, 1915년 9월 12일, p. 2.

19) 「視察團と写真帖」, 『朝鮮時報』, 1915년 9월 12일, p. 2.

20) 조성운, 『식민지 근대관광과 일본시찰』, 경인문화사, 2011, p.39.

과 조선이 이만큼 발전했음을 보여주려는 일본의 의도가 있었다.²¹⁾

『조선사진첩』이 1925년에 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로 이렇게 대규모 서양인 단체가 조선을 방문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배부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진첩이 사진 제목이나 목차만 영어로 번역한 것과는 달리 해설에도 일일이 번역문을 첨부하는 등 영어 번역에 힘을 기울인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총독부가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영어 번역을 통해 서양에 어필하고자 한 사례는, 1915년부터 1935년까지 20년에 걸쳐 편찬 간행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선고적도보』는 일본이 한반도를 대상으로 고적조사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도판으로 제작하여 15첩으로 구성하여 발행한 방대한 자료집이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1916년에는 1집 2책을 먼저 일본 천황에게 헌상한 뒤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각 황제, 대통령, 황실박물관, 명사 및 재야 대사, 공사 등에게 발송했다는 점이다.²²⁾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은 제1책에서부터 5책까지 영문 해설을 첨부하여 비서관실에 비치하고 있다가 서양에서 내방한 손님들에게 직접 서명하여 증정하는 등, 영어 번역을 통해 그들의 통치상을 자랑할 정도였다.²³⁾ 이는 『조선고적도보』가 조선의 문화 유물을 조선인, 일본인 등 일반 대중들에게 소개시킬 뿐 아니라, 서구열강들에게도 식민 통치의 효과적 측면을 선전하려는 의도로 편찬되었음을 알려준다.²⁴⁾

21) 한규무, 「1900~1920년대 미국인 한국관광단 연구」, 『서강인문논총』 36호, 2013, p.164; 한규무 p.180. 또한 한규무는 시찰단과 관광단의 구별이 어렵다고 논한다. 이는 당시의 외국인 시찰단이 대부분 공적인 목적으로 방문하여 산업 기관 등을 방문한 이후에 명승지를 몇 군데 둘러가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따라서 신문 매체에 따라 시찰단, 관광단이 구별 없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22) 「古蹟圖譜發送」, 『매일신보』, 1916년 6월 22일, p.2.

23) 藤田亮策, 「朝鮮古文化財の保存」, 『朝鮮學報』 1, 1951, p.254.

24) 김인아, 「조선총독부의 『朝鮮古蹟圖譜』 편찬과 그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권81호, 2023, p.105.

다른 사진첩보다 영어 번역 문장에 큰 지면을 할애한 『조선사진첩』의 제작 목적 역시 대규모 서양인 단체를 대상으로 조선총독부의 시정 정책을 선전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서구권 제국에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고양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이 바로 영어 번역이었다는 지점은, 『조선사진첩』의 「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대내적 논리구조와 대외적 논리구조의 차이를 도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II. 일제강점기 우이동 벚꽃의 의미

『조선사진첩』에는 「근대」 문명과 산업을 상징하는 각 기관의 모습을 중심으로 조선의 관광명소도 함께 게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금강산, 불국사, 창경궁, 우이동 등이 소개되어 있다.

우이동은 벚꽃의 명소로 소개되어 있는데, 종래의 일제강점기 벚꽃 관련 연구가 주로 창경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다. 우이동은 창경원의 벚꽃놀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즉 1910년대 초중반에 벚꽃 구경의 명소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던 장소이며, 『조선사진첩』이 발행된 1920년대 중후반이 되면 우이동보다는 창경원으로 점점 인파가 몰리기 시작한다.²⁵⁾ 창경원에서 이루어진 벚꽃놀이가 일제강점기의 근대적이고 도회적이고 일본적인 취미로서 대중화되며, 창경원은 문화적 취미를 부여하는 종합적인 행락지로 기능했는데 특히 1924년부터 시작된 창경원의 벚꽃놀이가 이러한 성격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기 때문이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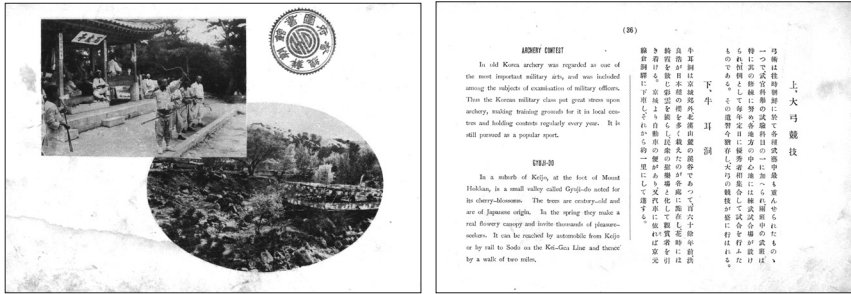
그러나 『조선사진첩』은 창경원을 「이왕가 창경궁의 일부로 박물관 부지

25) 김동명, 「식민지 조선에서의 벚꽃의 문화적변-우이동의 벚꽃구경에서 창경원의 벚꽃놀이로-」, 『한일관계사연구』 62집, 2018, p.518.

26) 박소현, 「제국의 취미-이왕가박물관과 일본의 박물관 정책에 대해」, 『미술사논단』 제18호, 2004, pp.143~169.

및 동식물원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는」 곳으로 설명하고, 관련 사진으로 「근래에 축조된 미술관」²⁷⁾을 선택했다. 그리고 벚꽃의 명소로는 우이동이 소개되었다.

특히 벚꽃이 일본을 상징하는 「국화(國花)」로 기능하며, 일본이 식민지화한 지역과 나라에 식수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야심을 표출시킨 꽃²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벚꽃의 명소로서 창경원이 아닌 우이동을 소개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며, 『조선사진첩』의 서술논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우이동」

우이동 벚꽃에 대해서는 그 기원 혹은 벚꽃구경의 명소가 된 경위에 대해서 아직 잘 알려진 바가 없지만,²⁹⁾ 우이동 벚꽃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은 여러 문헌과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우이동 벚꽃구경은 봄을 즐기는 하나의 상춘(賞春) 문화로 자리매

27) 『조선사진첩』, 「창경원」 항목, 페이지 수 지정 없음.
 28) Emiko Ohnuki-Tierney, 『Kamikaze, Cherry Blossoms, and Nationalisms: The Militarization of Aesthetics in Japanese Histor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p.122.
 29) 김동명, 「식민지 조선에서의 벚꽃의 문화적 변-우이동의 벚꽃구경에서 창경원의 벚꽃놀이로-」, 『한일관계사연구』 62집, 2018, p.493.

김하고 있었다. 창경원에 벚꽃이 식수되고 관앵(觀櫻)의 명소로 알려지기 전인 1910년대에는 우이동이 벚꽃구경의 명소로서 화젯거리가 되었다. 매년 『매일신보(每日申報)』 등의 신문매체가 벚꽃의 개화를 홍보하고, 벚꽃구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명인사의 관람과 각종 단체의 관앵회를 보도하였다. 1912년에는 우이동 벚꽃 관람객을 위해 일요일에 해당하는 4월 28일, 5월 5일에 임시열차를 배정하였으며,³⁰⁾ 1913년에는 3,4천명에 달하는 인파가 우이동의 벚꽃을 감상(觀賞)하기 위해 찾아왔다.³¹⁾ 우이동은 개인적인 관앵 장소에 그치지 않고, 각종 단체가 해마다 벚꽃구경을 연중행사의 하나처럼 진행했다. 예를 들면 숙명고등여학교의 앵화회³²⁾, 벚꽃 개화에 발맞춘 편사회(便射會)³³⁾, 부면장(副面長)의 관앵회³⁴⁾ 등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는지 「우이동이 터지겟」다는 비평³⁵⁾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렇게 인파가 몰려드는 우이동 벚꽃구경을 지원하기 위해 당국은 도로를 확장 개수(改修)하고³⁶⁾, 자동차를 특별 편성하고³⁷⁾, 매년 임시열차를 운행하였다.³⁸⁾ 또한 「無數(無數) 行客」을 예상하여 일본인이 경영하는 찻집(茶屋)과 조선인인 경영하는 찻집(茶屋)을 각각 2군데씩 건축하고,³⁹⁾ 벚꽃구경 기간 동안에는 우이동행 기차의 요금 할인 행사를 펼치기도 하였다.⁴⁰⁾ 우이동 벚꽃의 위상은 의친왕 이강(李垺)⁴¹⁾

30) 「觀櫻과 臨時列車」, 『每日申報』, 1912년 4월 26일, p.2.

31) 「牛耳洞의 櫻花」, 『每日申報』, 1913년 4월 22일, p.3.

32) 「淑明校의 櫻花會」, 『每日申報』, 1912년 4월 26일, p.3.

33) 「櫻花待發便射會」, 『每日申報』, 1913년 4월 9일, p.3.

34) 「部面長의 觀櫻會」, 『每日申報』, 1913년 4월 17일, p.2.

35) 「우이동이 터지겟군」, 『每日申報』, 1913년 4월 26일, p.3.

36) 「觀櫻道路의 改修」, 『每日申報』, 1913년 4월 16일, p.2.

37) 「牛耳洞의 自動車」, 『每日申報』, 1913년 4월 17일, p.2.

38) 「牛耳洞 臨時列車 例年과 如히 運轉」, 『每日申報』, 1920년 4월 10일, p.2.

39) 「牛耳洞에 新茶屋」, 『每日申報』, 1913년 4월 17일, p.2.

40) 「牛耳洞行 汽車割引」, 『每日申報』, 1918년 4월 21일, p.3.

41) 「李垺公殿下觀櫻」, 『每日申報』, 1913년 5월 3일, p.2.

을 비롯하여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총독⁴²⁾이 방문하고, 1916년 조선 총독부의 총독으로 임명된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총독이 되던 그 해 바로 우이동을 찾은 것⁴³⁾에서도 알 수 있다.

1910년대에 정점을 보이던 우이동의 벚꽃은 1928년에는 벌써 「노앵(老桜)」「고앵(古桜)»⁴⁴⁾으로 불리며 벚꽃구경은 점차 창경원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지만, 1940년에는 수석(水石)의 아름다움까지 함께 평가 받으며 명승천연 기념물로 지정⁴⁵⁾되는 등 벚꽃의 명소로 각인되게 된다.

IV. 『조선사진첩』 「우이동」의 「일본어 · 영어 대조 텍스트」

우이동에 벚꽃이 언제 식재되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벚꽃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선사진첩』은 그 기원에 대해서 일본어와 영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일본어	영어
원문	<p>牛耳洞</p> <p>牛耳洞は京城郊外、北漢山麓の溪谷であつて、百六十余年前、洪良浩が日本種の桜を多く栽えたのが各所に点在し、花時には綺霞を散じ彩雲を簇らし、民衆の慰樂場と化して鑑賞者を引き着ける。京城より自動車の便があり、又汽車に依れば京元線倉洞駅に下車し、それから約一里にして達する。</p>	<p>GYUJI-DO</p> <p>In a suburb of Keijo, at the foot of Mount Hokkann, is a small valley called Gyuji-do noted for its cherry-blossoms. <u>The trees are century-old and are of Japanese origin.</u> In the spring they make a real flowerly canopy and invite thousands of pleasure-seekers. It can be reached by automobile from Keijo or by rail to Sodo on the Kei-Gen Line and thence by a walk of two miles.</p>

42) 「總督牛耳洞行」, 『毎日申報』, 1916년 5월 23일, p.2.

43) 「總督牛耳洞行」, 『毎日申報』, 1917년, 4월 24일, p.2.

44) 「春は汽車に任せて湯の街花の山へ 京城から近い名所」, 『朝鮮新聞』, 1928년 3월 21일, p.3.

45) 「牛耳洞사구라 名勝天然記念物로 指定」(『毎日申報』, 1940년 5월 3일, p.6), 「桜の牛耳洞 名勝天然記念物に指定」(『京城日報』, 1940년 5월 3일, p.11)

	일본어	영어
한국어 번역	<p>우이동</p> <p>우이동은 경성 교외, 북한산 계곡에 있는데, 160여 년 전 홍양호(洪良浩)가 일본 중의 벚꽃을 많이 심어 각처에 접재하게 되었다. 이후 꽃이 필 때는 기하(綺霞)를 뿌리고 채운(彩雲)이 운집하며, 민중의 위락장으로 서 보는 사람을 대혹한다. 경성에서 자동차편이 있고, 기차를 타면 경원선 창동역에서 하차하여 약 1리 정도 가면 도착한다.</p>	<p>규지도</p> <p>게이조 교외의 호칸산 기슭에는 벚꽃으로 유명한 작은 계곡인 규지도가 있다. 이 나무들은 수백 년 된 일본산 벚나무들이다. 봄이 되면 벚꽃이 만발하여 꽃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며 수천 명의 상춘객들을 불러 모은다. 규지도는 게이조에서 자동차로 가거나, 게이겐 선을 타고 소도역에 내려서 2마일을 걸어가면 된다.</p>

위의 일본어 부분에는 우이동 벚꽃이 「160여년전 홍양호가 일본종의 벚꽃」을 심은 것에서 출발하였다고 쓰여 있다. 이 홍양호 기원설은 마쓰다 고(松田甲, 1864~1945)가 1922년 11월에 월간잡지 『조선(朝鮮)』(조선총독부 발행)에 발표한 글 「벚꽃을 우이동에 이식한 홍양호(桜を牛耳洞に移植せし洪良浩)」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마쓰다는 1911년에 조선총독부 임시 토지조사국의 기수(技手)로 부임하여 1945년 7월에 사망할 때까지 조선에서 생활하며 많은 저작을 남긴 저술가이다. 대표작으로는 『일선사화(日鮮史話)』(1926~1930), 『속일선사화(續日鮮史話)』(1931), 『조선잡기(朝鮮雜記)』(1925) 등을 들 수 있는데,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 양상을 주요 테마로 한 그의 활동은 일본의 동화 정책, 황민화 정책의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⁴⁶⁾ 특히 내선동화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조선과 일본의 교류에 천착하였고, 그 결과로 고래부터 이어진 「내선의 교류」가 「내선동화」의 기원이 되었다고 주장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⁴⁷⁾ 그는 1923년부터 조선총독부 관방축탁이 되어 문서과에서 근무하였는데,⁴⁸⁾ 『조선사진첩』이 발

46) 権純哲, 「松田甲の「日鮮」文化交流史研究」, 『埼玉大紀要(教養部)』第44巻 第1号, 2008, pp.55~56.

47) 박영미, 「일제강점기 松田甲의 한문학 연구에 대하여」, 『漢文學報』, 22집, 2010, p.190.

48) 박영미, 상계 논문, p.177.

행된 1925년 당시에도 축탁으로 활동하며 조선과 관련된 많은 글을 발표하였다. 마쓰이는 위에서 언급한 글 「벚꽃을 우이동에 이식한 홍양호」에서 벚꽃이 「국화(國花)」임에도 불구하고 우이동에 피는 벚꽃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조선 고유」의 품종인지 일본에서 이식한 것인지 궁금해 하기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그 조사 경위를 설명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 조선시대의 저명한 관료이자 문인인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 1724-1802)가 영조시대에 우이동을 개척하고 일본으로부터 벚나무를 이식하였음을 밝혀냈다고 서술한다. 그 근거로는 1962년(영조 38년) 홍양호가 우이동 일대를 소유하게 된 점, 홍양호가 수목화초에 매우 관심이 높아 한시문에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등장하는 점을 들었다. 다만 홍양호의 문집에는 벚나무가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마쓰이 스스로 의문을 표하며, 실은 홍양호의 문집 『만물원시(萬物原始)』 및 그 손자인 홍경모(洪敬謨, 1774-1851)의 글 「이계임원기(耳溪林園記)」에 「柰」가 나오는데 한반도에서는 「柰」가 「櫻」과 같은 의미로 쓰였으며 「^{サツ}벚」으로 불린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홍양호의 지인 중에 1761년(영조 을유년)에 조선통신사로 파견된 인물과 일찍이 시문의 교류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게 부탁하였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친다.⁴⁹⁾

마쓰다의 이 주장은 그 다음 해인 1923년 벚꽃의 개화를 앞두고 『매일신보』 제1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4월 10일, 4월 13일 이틀에 걸쳐 연속으로 소개되는 등,⁵⁰⁾ 이후 우이동 벚꽃의 기원을 설명하는 논리근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실은 우이동의 벚꽃에 대해서는 홍양호가 일본에서 「이식」한 것

49) 松田甲, 「桜を牛耳洞に移植せし洪良浩」, 『朝鮮』 92호, 朝鮮總督府, 1922, pp.85~93.

50) 「櫻花의 名所 牛耳洞 開拓者 洪선생 (一)」(『每日申報』, 1923년 4월 10일, p.1), 「櫻花의 名所, 牛耳洞 開拓者 耳溪 洪先生(하)」(『每日申報』, 1923년 4월 13일, p.1).

이라는 마쓰다의 주장 이전에, 한반도 재래종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예를 들어 근대기의 관료, 정치가로 활동한 조중응(趙重應, 1860-1919)은 우이동의 벚나무가 「군사상 필요」에 인해 식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주장은 대략 이렇하다. 예전에 조선에서는 무기 특히 활을 제조하기 위해 벚나무를 활용했는데, 화강석 바위가 많은 장소에서 벚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북한산 기슭인 우이동에 몇천그루를 심었으며, 이를 번식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하여 수만그루가 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 총의 수요가 늘어나고 활 제조가 필요치 않게 되어 점차 그 세금 혜택이 줄어들자, 백성들이 벚나무를 남벌하고 열매가 많이 나는 밤나무를 심기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벚나무도 감소하게 되었다. 때문에 보존회 등을 조직하여 이 「훌륭한 경치」를 영구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⁵¹⁾ 이 외에도 우이동의 벚나무는 「요시노 사쿠라(吉野桜)와는 다른 종으로 순수한 조선 벚나무」⁵²⁾, 「(우이동의 벚나무 즉) 조선의 산벚(山櫻)은 창경원, 모란대의 벚나무와는 꽃과 잎의 색이 완전히 다른 색」⁵³⁾이라고 평가되는 등, 우이동의 벚나무가 일본에서 유래된 종류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렇게 우이동의 벚나무에 대해서 홍양호가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조선 고유종이라는 의견이 착종하는 가운데, 급기야 두 견해가 섞여서 이조시대에 무기로 사용하는 활을 만들기 위해 일본에서 이식한 것이라는 주장⁵⁴⁾까지 나오게 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당시 벚꽃이 가진 「국화」라는 상징과 그리고 이 상징성을 증좌하기 위해 일본 기원설이 급조되고 보강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 분위기를 암시한다. 물론 홍양호가 이식했다는 마쓰다의

51) 「牛耳洞 桜의 由来」, 『毎日申報』, 1915년 5월 5일, p. 3.

52) 龜岡榮吉, 「花の京城」, 『四季の朝鮮』, 朝鮮拓殖資料調査會, 1926, pp.13~14.

53) 「牛耳洞の桜」, 『京城日報』, 1935년 4월 25일, p.11.

54) 「朝鮮の桜の名所」, 『京城日報』, 1925년 4월 25일, p.5.

주장이 추측과 비약을 거듭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고 최근 연구자들은 조선 재래종일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⁵⁵⁾ 우이동 벚꽃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와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엇갈린 견해 속에 『조선사진첩』은 일본 기원설을 채택했는데, 특히 일본어 문장을 통해 「160여년전 홍양호가 일본종의 벚꽃」을 심은 것이라는 마쓰다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마쓰다가 우이동 벚꽃의 기원을 찾는 데 있어서 홍양호에 주목한 것은 그가 조선시대의 저명한 관료이자 「우이동의 주인」⁵⁶⁾이라고 불릴 만큼 우이동에서 대를 이어 생활하며 우이동을 소재로 한 많은 글을 남겼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마쓰다는 이제 홍양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여러 편의 저술을 남겼다. 1924년 11월부터 1925년 1월에 걸쳐 잡지 『조선(朝鮮)』에 「홍이계의 사적(洪耳谿の事蹟)」이라는 글을 연재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치수와 식수(治水と植樹)」「경륜(經綸)」「학문(學問)」「저술(著述)」「주거와 자손(住居と子孫)」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의 업적을 소개한다. 이 글은 1925년 3월 22일부터 1925년 4월 19일까지 25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다시 연재되었다. 그만큼 일본의 식민 통치에 부합하는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첫 번째 글 「치수와 식수」에서 마쓰이는 조선시대의 관리들이 주자학에만 몰입한 나머지 당파분쟁을 일으키고, 「번문욕례(繁文縟禮)」에 의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며, 나라의 관리들은 「인민의 고혈」을 착취하였다며 매섭게 비판한다. 그런 가운데 홍양호는 다른 조선 관료들과는 결을 달리하는 사람으로, 「청렴결백」하고 「事業 文章」⁵⁷⁾에 모두 능한 인물이기에 많은 이들에게

55) 朴俊浩, 「朝鮮植民地支配下での日本の桜・花見の伝播と受容過程」, 『次世代論集』 5, 2021, p.23.

56) 이종묵, 「홍양호와 홍경모의 글로 남은 우이구곡의 기억」, 『인문과학연구』 16권, 2011, p.28.

57) 松田甲, 「洪耳谿の事蹟」, 『朝鮮』, 115호, 1924, pp.37~40.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홍양호의 업적으로는 평안남도 강동군 만류제를 축조하고,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지를 만들어 관개 사업에 이바지한 점을 들고 있는데, 이에 이어서 우이동에 벚나무를 식재한 업적을 칭송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마쓰이는 1922년에 이미 홍양호가 우이동에 벚나무를 이식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백성을 위한 제방과 저수지의 축조와 같은 선상에서 병기하여 언급함으로써, 벚나무의 「이식」을 민생을 위한 업적으로 재평가하였다. 이러한 마쓰이의 일련의 글을 통해 홍양호는 과거의 조선을 비판하기 위해 최적화된 인물이며, 식민 통치에 봉사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받게 되었다. 마쓰이는 우이동 벚꽃이 일본에서 유래된 것인데, 거기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여느 조선 관리와는 달리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친 홍양호였다는 논리를 창작하여 동화정책의 필연성을 역설하고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의 촉탁이었던 마쓰이의 글 「홍이계의 사적(洪耳谿の事蹟)」이 1924년 11월부터 1925년 4월까지 잡지 『조선』과 『매일신보』에 집중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총독부가 1925년 8월에 발행한 『조선사진첩』의 서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사진첩』은 마쓰이가 창작한 우이동과 홍양호 서사를 매개함으로써 우이동 벚꽃의 기원에 대한 구체성을 담보하고, 고래부터 이어진 「내선의 교류」를 명기함으로써, 동화정책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일본어 문장이 홍양호라는 구체적인 인명까지 제시하며 일본중임을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영어 문장 「The trees are century-old and are of Japanese origin」에는 홍양호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그저 수백년 된 일본산 나무라고만 해설하고 있다는 지점이다.

이는 영어 문장을 읽을 서양인이 홍양호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번역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항목이나 표현이 어떤 항목이나 표현이 텍스트에서 기능하지 못하고, 텍

스트에서 기능하지 못하고 의미전달에서 큰 무리가 없으면 번역에서는 생략이라는 전략을 종종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영어 번역이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선전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도에 제작되었다는 점, 특히 고유명사의 경우 번역가의 정치적 스탠스가 드러나기 쉽다는 점⁵⁸⁾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히 가독성의 문제를 넘어 일본의 정치적 의도의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홍양호는 정이품에 해당하는 대제학(大提學)을 지냈을 뿐 아니라, 영조와 정조로부터 「박학(博學)」으로 지목받았으며, 문학 작품을 비롯하여 실로 방대한 저작을 남긴 조선시대의 저명한 관료이자 문인이다.⁵⁹⁾ 또한 홍양호에 대한 마쓰이의 글이 잡지와 신문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식민지조선에서 생활하는 조선인 혹은 일본인은 그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 서양인들이 우이동 벚꽃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의 이름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즉 홍양호의 지명도가 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영어에서는 우이동 벚꽃이 일본에서 기원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조선을 향해서는 홍양호라는 역사 속에 살아있는 구체적 인물을 제시함으로써 일본과 조선의 기원이 하나라는 동화정책에 보다 큰 설득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반면, 서양인들에게는 동화정책을 선전하고 고양하되 설득하여 납득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다. 홍양호를 매개할지 생략할지는 텍스트를 읽는 대상이 동화 정책의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58) 今野喜和人, 「翻訳の〈倫理〉の一側面：固有名詞の訳をめぐるって」, 『翻訳の文化/文化の翻訳』9, 2014, p.11.

59) 진재교, 「洪良浩의 交遊關係와 文學活動에 대하여」, 『漢文教育研究』 제7권 제13호, 1999, p.305.

V. 나오며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사진첩 관련 연구는 지금까지 어떤 사진이 취사선택되었으며, 사진의 구도와 구성이 어떤 논리에 기반하여 제작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그 결과 사진첩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였음이 밝혀졌다. 본고의 분석 대상인 『조선사진첩』 또한 그러한 의도 하에 제작된 것인데, 특기할 사항은 사진의 제목뿐 아니라 사진에 대한 설명까지 영어 번역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서구권의 독자를 크게 의식한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다른 사진첩보다도 일본의 서구 열강에 대한 의식 구조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어와 영어의 대역본의 존재는 서구열강에 대한 언설이 내부를 향한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꿰뚫어 보기에 매우 적절한 분석 대상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와 같은 시좌에서 우이동의 벚꽃 부분을 살펴 보았다. 우이동 벚꽃 해설에는 식민 통치 정책의 근간이었던 동화 정책이 강조되어 있는데, 특기할 사항은 동화 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일본어와 영어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어와 영어를 비교해 보면, 일본어에는 우이동 벚꽃이 조선시대의 홍양호가 일본으로부터 이식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반면에, 영어는 홍양호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에서 유래되었다는 간략한 설명만 나와 있다. 이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에서는 홍양호를 통해 동화정책의 정통성과 필연성을 확보하여 대중을 납득시키고 설득할 필요가 있는 반면, 영어에서는 홍양호라는 고유명사가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또한 서구권 독자에게는 일본인과 조선인에 비해 동화정책의 필연성을 역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일본어·영어 대조텍스트」 자료군의 일본어와 영어

는 각각 다른 독자를 상정하고 집필된다. 그렇기에 그 제작 목적과 의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본고에서 살펴본 『조선사진첩』 우이동 벚꽃 항목의 일본어와 영어 사이에 나타난 간극은 바로 이러한 상이한 집필 의도가 표출된 것이다. 종래에 주목받지 못한 일본어와 영어 번역문의 분석은 앞으로도 번역, 역사,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4년 5월 20일

논문 심사일 : 2024년 5월 26일

게재 확정일 : 2024년 5월 26일

참고문헌

〈자료〉

- 『京城日報』, 「半島の近影 英文写真帖」, 1936년 5월 6일.
_____, 「観光写真帳『半島の近影』」, 1936년 4월 29일.
_____, 「桜の牛耳洞 名勝天然記念物に指定」, 1940년 5월 3일.
_____, 「牛耳洞の桜」, 1935년 4월 25일.
_____, 「朝鮮の桜の名所」, 1925년 4월 25일.
『毎日申報』, 「古蹟圖譜發送」, 1916년 6월 22일.
_____, 「觀櫻과 臨時列車」, 1912년 4월 26일.
_____, 「牛耳洞의 櫻花」, 1913년 4월 22일.
_____, 「淑明校의 櫻花會」, 1912년 4월 26일.
_____, 「櫻花待發便射會」, 1913년 4월 9일.
_____, 「部面長의 觀櫻會」, 1913년 4월 17일.
_____, 「우이동이 터지갯군」, 1913년 4월 26일.
_____, 「觀櫻道路의 改修」, 1913년 4월 16일.
_____, 「牛耳洞의 自動車」, 1913년 4월 17일.
_____, 「牛耳洞 臨時列車 例年과 如히 運轉」, 1920년 4월 10일.
_____, 「牛耳洞에 新茶屋」, 1913년 4월 17일.
_____, 「牛耳洞行 汽車割引」, 1918년 4월 21일.
_____, 「李垆公殿下觀櫻」, 1913년 5월 3일.
_____, 「總督牛耳洞行」, 1916년 5월 23일.
_____, 「總督牛耳洞行」, 1917년 4월 24일.

- _____, 「牛耳洞사구라 名勝天然記念物로 指定」, 1940년 5월 3일.
- _____, 「櫻花의 名所 牛耳洞 開拓者 洪선생 (一)」, 1923년 4월 10일.
- _____, 「櫻花의 名所, 牛耳洞 開拓者 耳溪 洪 先生(하)」, 1923년 4월 13일.
- _____, 「牛耳洞 桜의 由来」, 1915년 5월 5일.
- 『釜山日報』, 「神戸視察團來鮮」, 1919년 9월 4일.
- 松田甲, 「洪耳谿의 事蹟」, 『朝鮮』, 115호, 1924.
- _____, 「桜を牛耳洞に移植せし洪良浩」, 『朝鮮』 92호, 朝鮮總督府, 1922.
- 亀岡榮吉, 「花の京城」, 『四季の朝鮮』, 朝鮮拓殖資料調査會, 1926.
- 이광수, 「少年에게」, 『개벽』 18호, 1921.
- 이왕직박물관, 『이왕가박물관 소장품 사진첩』, 1918.
- 『朝鮮時報』, 「協賛會の寫真帖」, 1915년 9월 12일.
- _____, 「視察團と寫真帖」, 1915년 9월 12일.
- 『朝鮮新聞』, 「春は汽車に任せて 湯の街花の山へ 京城から近い名所」, 1928년 3월 21일.
- 조선총독부, 『조선사진첩』, 조선인쇄주식회사, 1925.

〈연구논문〉

- 김수현, 「새로운 소비문화 ‘관광’: 식민지 조선의 여행지 홍보 수단」, 『민족 21』, 2009.
- 김동명, 「식민지 조선에서의 벚꽃의 문화적 변천—우이동의 벚꽃구경에서 창경원의 벚꽃놀이로—」, 『한일관계사연구』 62집, 2018.
- 김인아, 「조선총독부의 「朝鮮古蹟圖譜」 편찬과 그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권 81호, 2023.
- 김효숙·곽은주·이병진·탁진영, 「조선총독부 간행 「일본어·영어 대조 텍스트

- 트: 사료군의 보고 및 연구전망, 『일본공간』 28, 2021.
- 박소현, 「제국의 취미－이왕가박물관과 일본의 박물관 정책에 대해」, 『미술사논단』 제18호, 2004.
- 박영미, 「일제강점기 松田甲의 한문학 연구에 대하여」, 『漢文學報』 22집, 2010.
- 목수현, 「일제하 이왕가 박물관(李王家博物館)의 식민지적 성격」, 『미술사학연구』 227권 227호, 2000.
- 문순희·박진한, 『사진엽서와 안내서로 만나는 인천의 명소와 근대관광』, 인천대학교인천학연구원, 2018.
- 이연경, 「경성부지권(京城府之卷) 외 사진첩에 재현된일본인 거류지의 도시공간의 성격과 그 특징」,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3권 3호, 2018.
- 이종묵, 「홍양호와 흥경모의 글로 남은 우이구곡의 기억」, 『인문과학연구』 16권, 2011.
- 장원석·정치영, 「일제의 사진첩에 투영된 식민지 조선의 이미지」,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30권 제2호, 2020.
- 조성운, 『식민지 근대관광과 일본시찰』, 경인문화사, 2011.
- 진재교, 「洪良浩의 交遊關係와 文學活動에 대하여」, 『漢文教育研究』 제7권 제13호, 1999.
- 탁진영, 「조선총독부 발행 『조선:사진첩』(1925)의 영어 텍스트 분석: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담론 분석」, 『인문과학논총』 43권 2호, 2022.
- 한규무, 「1900~1920년대 미국인 한국관광단 연구」, 『서강인문논총』 36호, 2013.

今野喜和人, 「翻訳の〈倫理〉の一側面 : 固有名詞の訳をめぐる」, 『翻訳の文化/文化の翻訳』9, 2014.

権純哲, 「松田甲の「日鮮」文化交流史研究」, 『埼玉大 紀要(教養部)』第44巻 第1号, 2008.

藤田亮策, 「朝鮮古文化財の保存」, 『朝鮮學報』1, 1951.

朴俊浩, 「朝鮮植民地支配下での日本の桜・花見の伝播と受容過程」, 『次世代論集』5, 2021.

Emiko Ohnuki-Tierney, 『Kamikaze, Cherry Blossoms, and Nationalisms: The Militarization of Aesthetics in Japanese Histor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Hyosook KIM, Silo CHIN, Jin-Young TAK, Eun-Joo KWAK, 「The Transliteration of Korean Place Names in Colonial Times: Unveiling the Strategies of Japanese Imperialism」, 『Acta Koreana』, 26-2, 2023.

Abstract

The Cherry Blossoms of Ui-dong and Hong Yang-ho in the *Chōsen shashin-chō* (*Korean Photo Album*)

: Focusing on the Japanese-English Parallel Text

KIM Hyosook
Lee Byung Jin

In the process of colonizing the Korean Peninsula, Japan was acutely aware of the evaluations from the leading imperial powers of the West. Japan sought to promote and justify its rule, policies, and outcomes to these Western powers. Within this framework, the “Japanese-English Parallel Text” was created, involving the translation of Japanese texts into English.

A particularly unique example of the “Japanese-English Parallel Text” is the 1925 publication of the *Chōsen shashin-chō* (*Korean Photo Album*). This album, intended for distribution to the increasing number of Western inspection groups in the 1920s, includes explanations of the photographs in both Japanese and English. Through the *Chōsen shashin-chō*, Japan aimed to contrast the “modern civilization” they had achieved with the perceived backwardness of Korea, thereby legitimizing their colonial rule not only to Koreans and Japanese but also to Western readers.

The album also emphasizes the assimilation policy, a cornerstone of Japan’s colonial governance. Notably,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the Japanese and English texts in explaining this policy. A comparison of the Japanese and English descriptions of the cherry blossoms in Ui-dong reveals

that the Japanese text provides a detailed explanation that Hong Yang-ho transplanted these blossoms from Japan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contrast, the English text simply states that the blossoms originated from Japan, without mentioning Hong Yang-ho. This discrepancy arises because the Japanese text, intended for Korean and Japanese audiences, needed to use Hong Yang-ho to establish the legitimacy and inevitability of the assimilation policy, thereby persuading and convincing the readers. Conversely, in the English text, the proper noun “Hong Yang-ho” does not serve any function, and there is no need to emphasize the inevitability of the assimilation policy to Western readers, who were less concerned with these nuances compared to Korean and Japanese readers.

Keywords

Chōsen shashin-chō (Korean Photo Album), Hong Yang-Ho, Ui-dong, Cherry Blossom, Japanese-English Parallel Texts